

## ▶ 달러/원 주간 전망

### • 환율 1400원대 고착화 시험대

서울, 5월1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중 무역협상 결과 따라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주간 환율 예상범위는 1380-1420원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이 논의됐고, 많은 것에 동의가 이뤄졌다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맞대응 보복 관세로 치달은 미-중 무역전쟁이 무역협상을 통해 완화 국면으로 들어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들쭉날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자산 투자 회복과 강달러 재개 여부, 아울러 위안 방향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원화의 단기 방향성도 결정될 전망이다.

대만달러 초강세에 연휴 기간 중 큰 하방압력을 받았던 달러/원 환율은 해외투자 매물을 앞세운 실수요에 1380원대에서 지지된 이후 1400원대로 반등해 다소 어정쩡한 분위기에서 지난 주를 마쳤다.

그런 만큼 미-중 무역협상 결과로 달러와 위안의 단기 방향성은 원화에 더욱 중요해졌다. 만약 이번엔 환율이 1400원대를 제대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환율의 1400원대 고착화 인식은 더욱 굳어질 수 있다.

바클레이즈는 최근 보고서에서 목표 레벨 1450원, 스타로스 레벨 1365원으로, 달러/원 NDF 1개월물 롱 포지션을 권고했다. 최근 며칠간 원화 강세를 지지한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고, 국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원화를 활용해 달러 자산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달러/원 환율의 레인지 하향 조정에도 아직 추세 변화에 확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환율은 지난주와 같이 변동성에 취약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주 주목할 대외 지표로는 미국 4월 물가지수와 소매판매 등이다. 핵심 경제지표 발표 예정에도 미국 관세정책이 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 아래 지표 결과에 대한 시장 반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주목받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당초 1.6%에서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은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존 2.0%에서 0.8%로 올해 성장을 전망치를 대폭 내린 바 있다.

한편, 한-미 통상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무 대표가 1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협의 논의가 더 진행될지 주목된다.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이슈

### • 美 CPI·소매판매, 英 성장률 등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추가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안도감이, 실망스러운 지표가 나오면 비관론이 커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으로 향하고, 아시아 통화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의 새 지도자는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다.

#### 1. 트럼프의 중동 방문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주요 외교 순방이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중동 3개국 순방으로 시작된다.

이번 순방에서는 무역 및 안보 이슈를 의제로 하는 투자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부 걸프 국가에 대한 마이크로칩 수출 제한을 완화할지 여부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광업 및 광물 거래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문제도 눈에 띄게 등장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더 이상 사우디에 민간 핵 협력 회담의 진전 조건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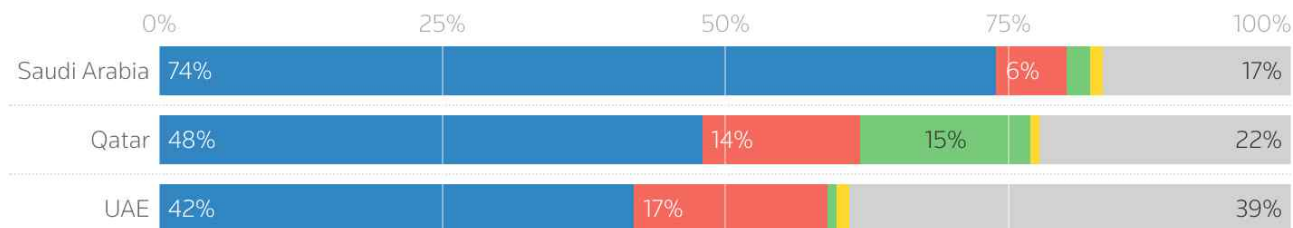
이는 미국의 주요 양보가 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The United States is the biggest arms supplier to the Middle-East

Share of arms imports by major suppliers between 2020 and 2024

● U.S. ● France ● UK ● Germany ● Others



Source: SIPRI

Sumanta Sen • May 8, 2025 |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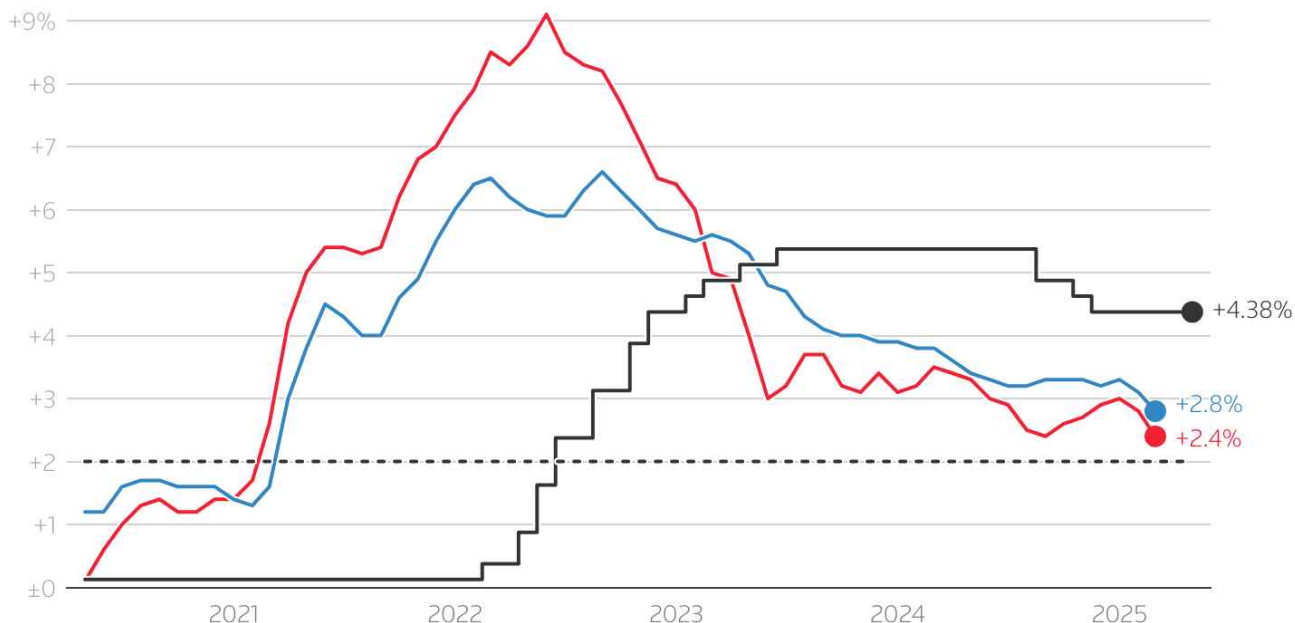
## 2. 관세 영향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지출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는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트럼프의 관세가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가운데 이번 주 미국 데이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화요일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추세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지표이며, 목요일의 4월 소매 판매 수치는 소비자 지출에 대한 최신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3월 소매판매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피하기 위해 가격이 자동차 및 기타 상품 구매를 늘리면서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었다. 투자자들은 심리 조사 및 기타 '소프트 데이터'의 악세가 경기 둔화로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다. 수요일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발표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주에는 월마트의 실적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 US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Benchmark interest rate and year-on-year change in CPI inflation

● CPI ● Core CPI ● Benchmark interest rate -- Inflation target



The benchmark interest rate is the midpoint of the federal funds targe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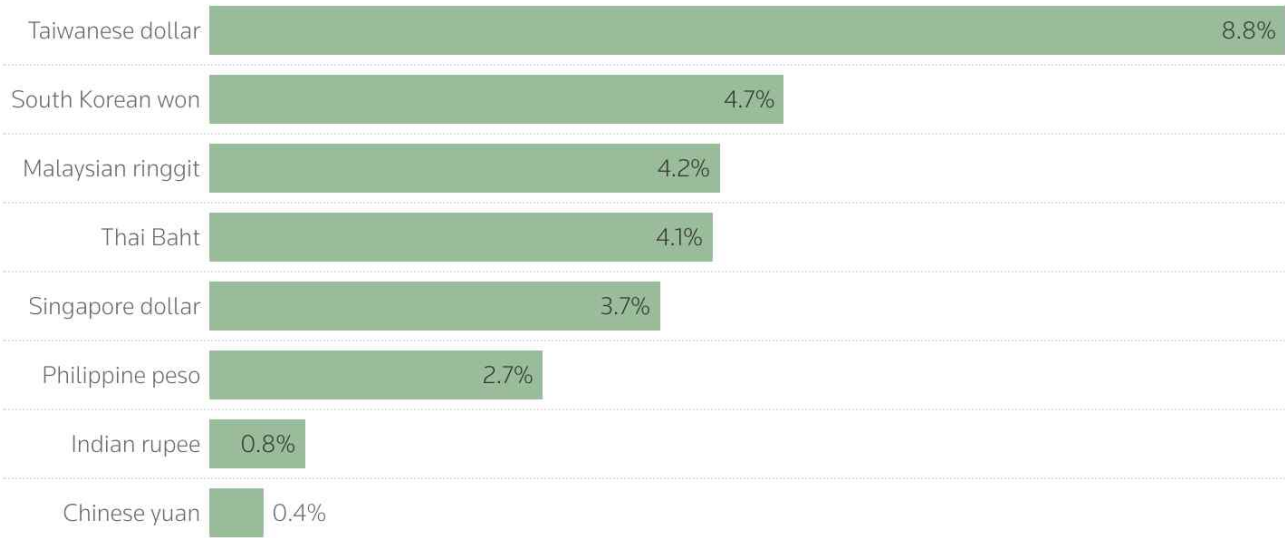
By Reuters • Sources: Bureau of Labor Statistics, LSEG

3. 亞 통화 움직임

수년간 달러 강세에 밀려 소외되었던 아시아 통화들이 돌아왔다. 대만 달러가 2거래일 동안 8% 상승하는 등 전례 없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아시아로 자금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어 중앙은행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 통화 당국은 달러에 대한 통화 페그를 유지하기 위해 개입했다. 투자자들은 또한 대만 달러의 급격한 상승이 대만 총통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마라라고 합의'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각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자국 통화 강세를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있을 것이다.

Asian currencies have risen against the US dollar in the last month

Change in the value of currency since April 2



Note: Data as of May 8 at 6:30 AM GMT.

Source: LS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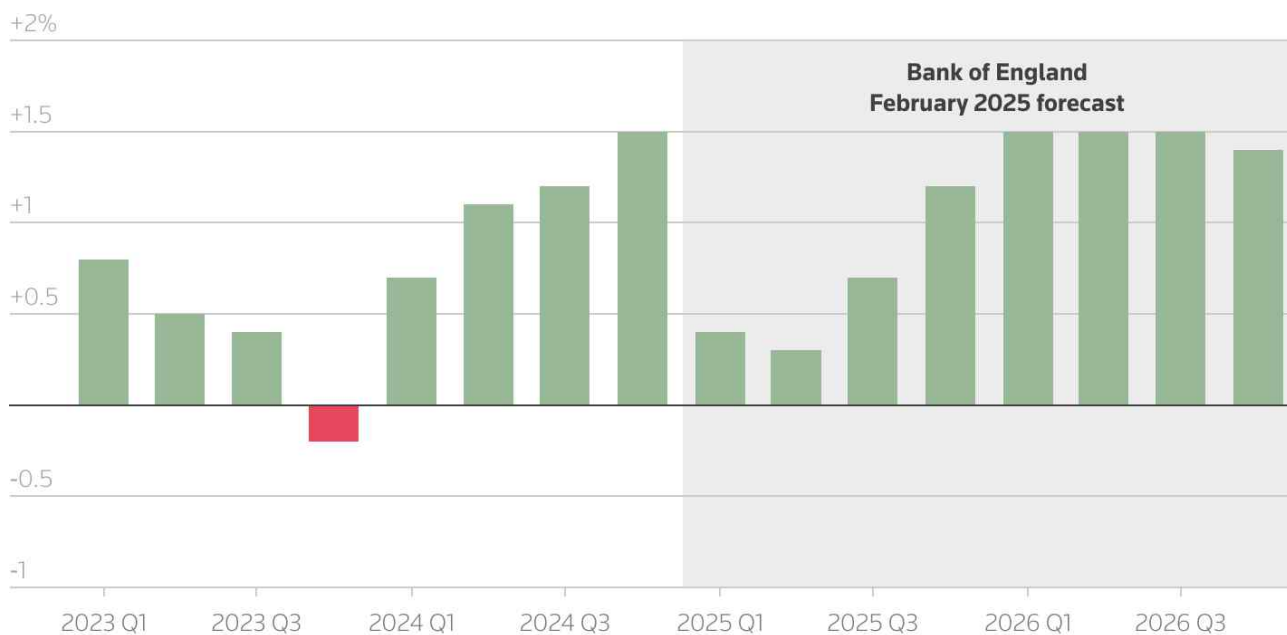
Rae Wee and Sumanta Sen • May 8, 2025 | REUTERS

4. 英 무역 합의와 경제 지표

영국이 미국과 첫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5월8일 영국산 자동차, 엔진, 비행기 부품,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대신 미국산 소고기와 기계류 등에 대한 영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획기적인' 합의를 환영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10%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무역 흑자를 자랑하는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청사진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영란은행 정책 입안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주 영국의 고용과 성장에 대한 데이터는 보통은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을 수 있다.

## BoE forecasts UK economic growth to pick up later this year

Year-on-year real GDP growth rate



Sources: LSEG Datastream; BoE

Sumanta Sen • May 8, 2025 | REUTERS

### 5. 獨 불안한 출발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는 전후 독일에서 전례 없는 첫 투표에서의 의회 지지 실패로 순탄치 않은 출발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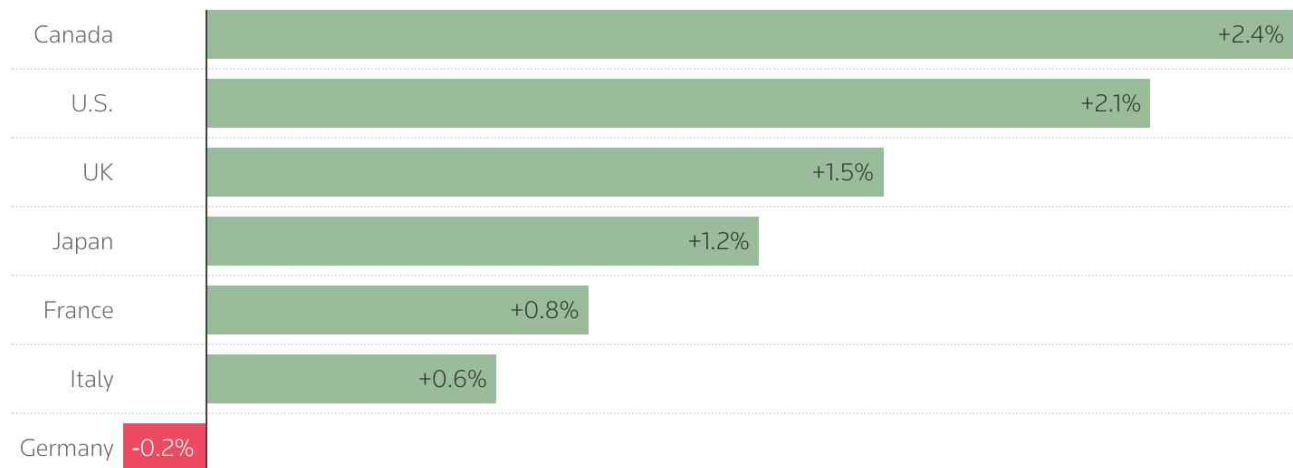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메르츠 총리가 독일을 불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계획을 이행하는 데 직면한 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경제는 3년 연속 수축세를 기록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2월 선거 이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국방과 인프라에 대한 지출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럽 시장에 불을 지폈다. 유로화와 독일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화요일 의회에서의 일시적인 좌절은 집권 연정의 취약성을 상기시켰고, 메르츠 총리가 자신의 중도우파 정당에게 인기가 없는 공동 채권을 통한 유럽 지출의 영구적 자금 조달을 지지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일부에서는 보고 있다.

## Germany, the G7 laggard

Annual real GDP growth rate for the latest quarter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Note: Data for Germany, U.S., France and Italy are for Q1 2025 while that for UK, Canada and Japan are for Q4 2024

Source: LSEG Datastream

Sumanta Sen • May 8, 2025 | REUTERS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증시 주도주 변화와 물가·소매판매 결과 주목

뉴욕, 5월12일 (로이터) -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시장의 주도주 변화 여부와 함께 경제지표에 주목하면서 바쁜 한 주를 시작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경제적 피해 우려로 증시가 흔들리면서 벤치마크 S&P 500 지수( .SPX )는 2025년 3.7% 하락했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더 안전한 분야로 여겨지는 필수소비재( .SPLRCS )와 유틸리티( .SPLRCU ) 업종은 올해 각각 5%와 5.6% 상승했다.

이들 업종은 경기 둔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반면 배당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난처로 찾는 경우가 많다.

호리존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CEO 척 칼슨은 "시장이 리스크 오프 모드에 있다면 이러한 섹터가 계속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시가 지난 한 달 동안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기술, 산업재, 임의 소비재와 같이 낙관적인 경제 심리 또는 '리스크 온' 투자자 행동과 더 관련이 있는 섹터가 초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니 몽고메리 스콧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크 루스키니는 방어적인 섹터에서 금융이나 에너지 등 경제와 관련된 분야로 이동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밝혔다.

## Defensive US stock sectors leading

The utilities and consumer staples sectors have outperformed the broader S&P 500 this year



By Lewis Krauskopf • Source: LSEG

올해 지금까지 데이터는 경제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심리 조사 및 기타 '소프트 데이터'는 약했다. 매뉴라이프 존 핸콕 인베스트먼트의 공동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매튜 미스킨은 "모든 매크로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주식의 방어적 성향에 반영된 심리 둔화인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인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화요일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인플레이션 추세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지표이며, 목요일의 4월 소매판매는 소비자 지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관세 부과가 물가를 상승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스킨은 CPI가 예상보다 높고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밑돌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은 지난주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이러한 우려에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할 위험이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터 외에도 이번 주에는 소매업 대기업인 월마트(WMT.N)를 비롯해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소비자 행동과 수입품 가격에 대한 분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무거운 관세의 상당 부분을 90일간 유예한 이후 투자자들은 더 많은 합의 를 기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계속 주목할 것이다.

CFRA 전략가들은 지난 수요일 메모에서 "전 세계적으로 협상이 시작되고 있으며, 일시 중단이 만료되기 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5월12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 5월12일(월)

- 관세청: 5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 KDI: KDI 경제동향(2025.5) (12:00)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 (14:30)
- 한국은행: 총재 「BIS 총재회의」(스위스 바젤) (8~14일)

★ 5월13일(화)

- 특이 일정 없음

★ 5월14일(수)

- 통계청: 2025년 4월 고용동향 (08:00)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10:00)
- KDI: KDI 경제전망(2025. 상반기) (12:00)
- 한국은행: 2025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년 4월 가계대출 동향 (12:00)

★ 5월15일(목)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비통방) (09:00)
- 기획재정부: 2025년 5월 재정동향(3월말 누계기준) (10:00)
- 한국은행: 2025년 3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KDI·한국은행: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13:30)

★ 5월16일(금)

- 한국은행: 2025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06:00)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물가관계차관회의 (09:00)
- 기획재정부: 2025년 5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한국은행: 2025년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mailto: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5월12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5월9-16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YY	4월	7.3%	7.0%
5월9-16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4월	700.0B	3,640.0B
5월12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3월	3,678.0B	4,060.7B
5월12-19일		중국	FDI (YTD)	4월		-10.80%
5월13일	03:00	미국	연방예산	4월		-161.00B
5월13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4월		97.4
5월13일	21:30	미국	CPI MM, SA	4월	0.3%	-0.1%
5월14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4월	0.2%	0.4%
5월14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5월9일 주간		248.4
5월15일	18:00	유로존	고용 잠정치	1분기		169,435.3k
5월15일	18:00	유로존	GDP 속보치 QQ	1분기	0.4%	0.4%
5월15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MM	3월	1.6%	1.1%

5월15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5월	-10.00	-8.10
5월15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10일 주간	230k	228k
5월15일	21:30	미국	PPI MM	4월	0.2%	-0.4%
5월15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4월	0.0%	1.5%
5월15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4월	0.2%	-0.3%
5월15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5월	40	40
5월16일	08:50	일본	GDP QQ 연율	1분기	-0.2%	2.2%
5월16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4월	1.450M	1.467M
5월16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4월	1.365M	1.324M
5월16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4월	-0.5%	-0.1%
5월16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4월	-0.5%	0.0%
5월16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5월	53.1	52.2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mailto: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5월12일 (로이터)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 5월12일 (월)

-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경제 전망 관련 연설 (오후 11시25분)
- 휴장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 5월13일 (화)

- 일본은행 4월30일-5월1일 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공개 (오전 8시50분)
- 휴장국가: 인도네시아

### 5월14일 (수)

-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경제 전망 관련 연설 (오후 10시10분)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캘리포니아 은행인협회 연차 총회 참석 (15일 오전 6시40분)

### 5월15일 (목)

- 연방준비제도 제 2회 토마스 라우바흐 리서치 컨퍼런스 개최 (16일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프레임워크 리뷰' 연설 (오후 9시40분)
- 마이클 바 연준 이사, 화상 심포지엄 개막 연설 (16일 오전 3시5분)

### 5월16일 (금)

- 나카무라 도요아키 일본은행 정책위원 연설 (오후 1시)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밴스-그랜빌 커뮤니티컬리지 졸업식 축하 (17일 오전 7시)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컬리지 오브 웨스턴 아이다호 졸업식 축하 (17일 오전 10시40분)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mailto: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단독)-엔비디아, 美 수출 규제에 중국용 H20 다운그레이드 버전 출시 예정

베이징, 5월9일 (로이터) - 엔비디아( NVDA.O )는 H20 인공지능 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H20의 중국용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향후 2개월 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세 명의 소식통이 로이터에 밝혔다.

엔비디아는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업체를 포함한 주요 중국 고객사에 수정된 H20 칩을 7월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통보하고 있다고 두 소식통은 전했다.

### • (칼럼)-亞 통화 급등으로 亞 무역전쟁에 대한 의구심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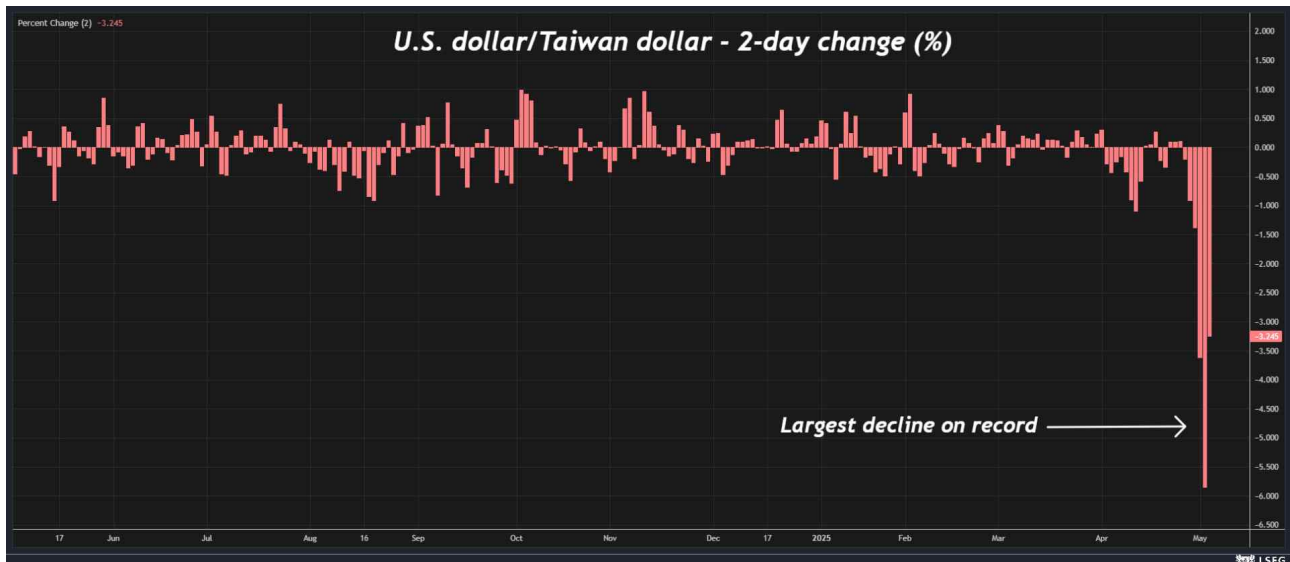
제이미 맥기버 로이터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랜도, 5월7일 (로이터) - 최근 며칠 동안 대만 달러의 기록적인 상승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무역전쟁에 맞서 아시아 통화가 얼마나 절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역적 난제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및 성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아시아 정책 입안자들이 선택하는 무기는 통화 가치 하락이다. 하지만 많은 아시아 통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만 달러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걸쳐 달러 대비 6% 상승하며 이틀 연속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무엇이 달러 '롱' 포지션을 갖고 헤지되지 않았던 시장으로의 자본 흐름 급증을 촉발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많은 분석가들은 대만이 다가오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통화 강세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대만 중앙은행과 총통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만 달러의 급등세가 단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아시아에서 외환을 무역전쟁의 충격 흡수 수단으로 사용할 의지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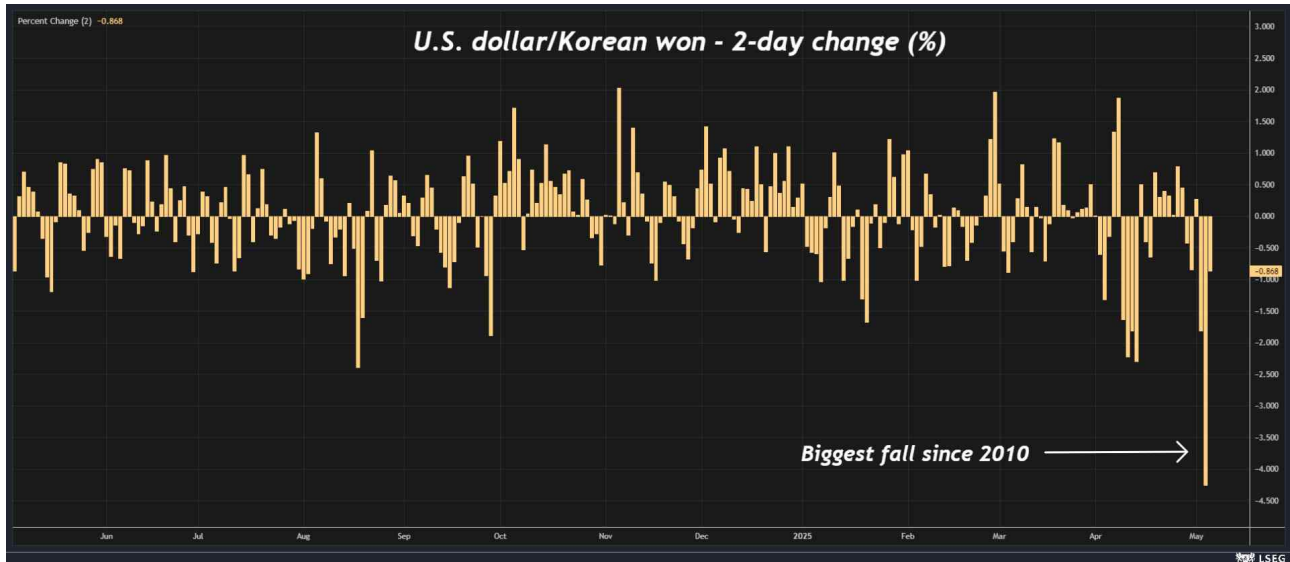


### ◆ 전염

최근 며칠 동안 대만 달러의 기록적인 움직임과 함께 월요일 한국 원화도 15년 만에 가장 큰 이틀간의 랠리를 기록했고, 중국 역외 위안화는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화요일에는 중국 시장이 다시 열렸고 역내 위안 가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토요일, 홍콩 통화청은 달러당 7.75~7.85 사이의 공식 밴드를 넘어서는 홍콩달러 강세를 막기 위해 465억4000만 홍콩달러(60억 달러)를 매각했다. 이는 홍콩 통화청이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취한 조치이자 외환 시장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입이었다.

인도 루피, 인도네시아 루피아, 베트남 동은 모두 최근 미국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최근 며칠 동안 루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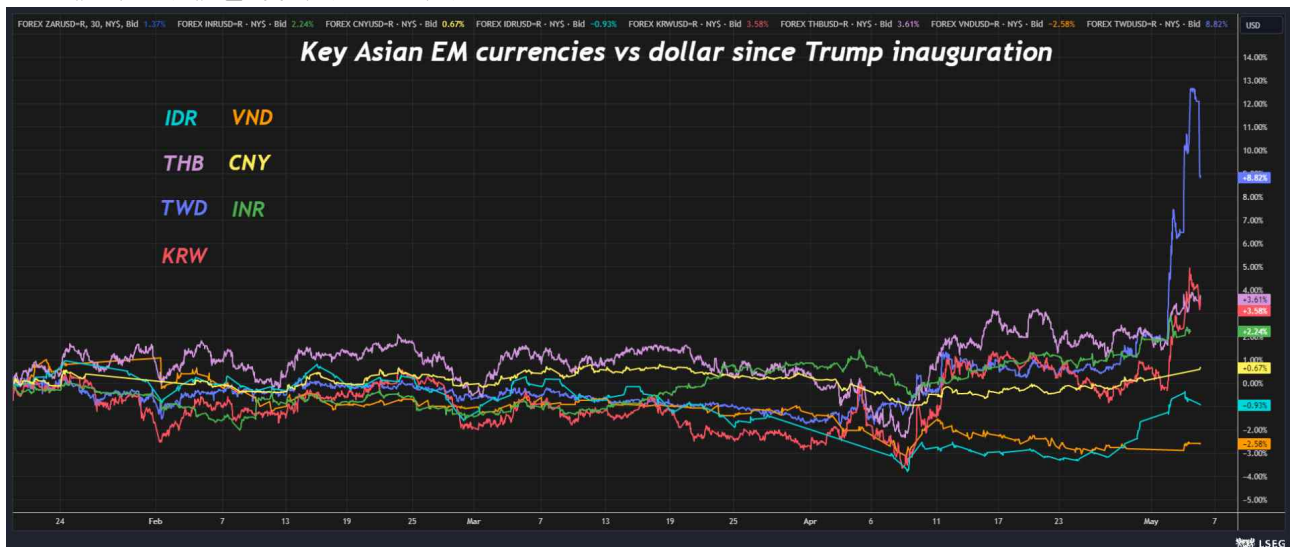
#### ◆ 트럼프가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다. 미국의 최대 양자 무역 적자 국가 중 일부는 트럼프가 수년 동안 미국에 '바가지'를 씌웠다고 말하는 아시아 국가들로, 이들은 중앙은행 개입과 막대한 외환 보유고 축적을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약세로 유지해 왔다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10대 양자 무역 적자 국가 중 6개국은 아시아 국가였으며, 그 중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미국이 기록한 이들 6개국과의 적자를 다 합치면 6500억 달러가 넘는다.

또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자국 통화를 면밀히 관리하거나 표면적으로는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만 암묵적으로 환율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중 어느 것이 '공정한' 또는 '불공정한' 거래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 상승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환경에서 이 지역이 즉각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 중요한 기로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통화 강세는 이들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국제 시장에서 떨어뜨리겠지만, 미국과 덜 징벌적인 무역 협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환율 상승은 지불할 가치가 있는 대가가 될 수 있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가장 평균 '상호' 관세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 이전 약 12%에서 40%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MUFG 분석가들은 추정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시아 역내 무역은 지난 40년간 43% 증가하여 전체 아시아 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따라서 달러 환율을 통해 미국에 일부 경쟁 우위를 양보하는 것은 상대적인 지역 경쟁력에 비해 의미가 떨어질 것이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현지 통화 강세에 대한 내성을 제한할 수 있다.

아시아 정책 입안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달러 약세다.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몇 달 동안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여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상승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실제로 강화된 반면, 미국 성장률은 약화되고 있으며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의 불규칙하고 논란이 많은 정책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가 미국 자산 보유 의사를 재평가하면서 달러 가격에 위험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아시아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무역 보복에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외환을 '무기화'하는 것이 더 이상 확실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mailto: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